

	보도자료	2026. 5. 11.(월) 즉시 보도 가능		
농업기술원		기술지원조정과장	송효선	☎ 760-7510
		농촌활력팀장	김윤정	☎ 760-7521
		홍보담당자	양지순	☎ 760-7514

교육부터 정착까지...청년농업인 전주기 지원 추진

- 현장 맞춤 교육, 4-H 활동, 창업 지원까지 단계별 지원 강화 -

-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(원장 김태균)은 제주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‘교육-조직-정착’ 을 아우르는 전주기 지원으로 청년농업인 육성에 나선다.
- 농업 인력의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농업·농촌으로의 청년농업인 유입과 정착이 중요해지고 있다. 이에 농업기술원은 기초 역량 강화 교육부터 창업까지 전 과정에 걸친 지원으로 청년농업인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.
- 우선 4개 과정 104회에 걸친 청년농업인 단계별 맞춤형 교육으로 변화하는 농업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.
- 기초과정인 ‘청년농업인학교’ 를 통한 기초 이론부터 심화과정인 ‘청년농업인 CEO 양성과정’ 을 통한 창업 준비까지 단계별 실무 역량을 강화하며, ‘ICT 기반 스마트팜 기술 활용 기초교육’ 을 통해 스마트농업 기술 활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.
- 또한 청년농업인의 영농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스터디그룹 활동을 지난해 5팀 29명에서 올해 8팀 51명으로 확대 운영하며 자율 학습과 기술 교류를 통한 현장 대응 능력을 키운다.
- 스터디그룹 활동으로 도출된 우수사례는 사업평가회를 통해 공유하고, 우수 그룹에 대해서는 도지사상을 수여할 예정이다.

- 이와 함께 청년농업인 단체 육성을 통해 조직 활성화와 미래 농업세대 간 교류를 확대한다.
- 제주특별자치도4-H연합회(2개회 180명)를 중심으로 농촌융복합 산업 제주국제박람회와 연계한 전시·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, 청년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과 가공품의 판로를 확대하고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- 도내 29개교 816명을 대상으로 진로교육·도농교류·과제활동 등 학교4-H 활동을 통해 농업 이해도와 진로 관심을 높여, 미래 제주농업의 잠재적 인재가 청년농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.
- * 고등학교 8개교 319명, 중학교 21개교 497명
- 아울러 2개 사업에 총 7억 5,000만 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.
- 청년농업인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한 ‘수요 맞춤형 영농정착 지원사업’으로 지난해 경진대회 수상자 4개소에 총 3억 원을 지원하고, 농업 연구개발(R&D) 성과를 현장에 적용하는 ‘R&D 기술창업 통합관리 지원사업’으로 2개소에 총 4억 5,000만 원을 투입한다.
- 이를 통해 청년농업인의 초기 정착 부담을 완화하고, 지역 농업의 혁신과 경쟁력 제고를 도모한다.
- 김윤정 농촌활력팀장은 “청년농업인이 지역에서 안정적인 농업 경영체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부터 창업까지 단계별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”며 “앞으로도 현장에 필요한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”고 말했다.